

보도시점 2026. 7. 26.(일) 11:00
2026. 7. 27.(월) 조간

배포 2026. 7. 24.(금) 16:00

농식품부, 지난 4월 저온 피해 등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 4월 저온 피해 과수농가, 이상고온 피해 마늘 농가 및 6.11일 우박 피해
2만 1천여 농가에 재해복구비 384억여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이상 저온과 이상 고온 및 6월 11일 우박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복구비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와 4월 21일 이상 저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작물 10,174.4ha에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3~4월 이상 고온과 잦은 강수로 인해 마늘 주산지인 전남광주, 경남북 지역에서 996.7ha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하였다.

* 겨울철~초봄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과다 등으로 마늘의 영양생장이 과도하게 빨라져 마늘쪽수가 늘어나거나 줄기 틈새로 잎이 다시 나온 마늘

또한 6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 정선과 충북 제천, 충주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사과, 옥수수, 배추 등 155.8ha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각 재해별로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복구비 (21,112농가, 38,397백만원)를 산정하고 2026년 7월 24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재해별 피해조사 기간 : (4월7~8일, 4월21일 저온피해) 5월26일~7월6일 / (이상 고온, 벌마늘) 5월 28일~6월 16일 / (6월 11일 우박) 6월 16일~6월 25일

** 4월7일~4월8일 저온피해 : 18,990농가 35,328백만원 / 이상고온(벌마늘) 피해 : 1,756농가 2,623백만원 / 6월11일 우박피해 : 366농가, 446백만원

피해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이상기후,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재해복구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과 장	최종순 (044-201-2871)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1-2872)

